

문화산책

강경호

한국문인협회 평론과 회장



불을 발명한 이후 수천 년의 간극을 넘어 마침내 인공 지능을 만들어낸 인류는, 이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최첨단 하이테크 시대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이 그만큼의 편리와 효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류는 농경사회의 삶의 방식에 바탕을 둔 아날로그적 상상력으로 살아왔고, 손전히 인간의 상상력으로 역사와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우리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문명의 변화 앞에서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앞으로 어떠한 과학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지능’은 본래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스스로를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능력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능마저 ‘인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미래 앞에서, 정작 그 미래를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손기능보다도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아무런 유익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옹호하는 인간의 운용 방식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도 인류 발전에 공헌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해마다 노벨상을 시상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의 과학적 성과가 인간의 탐욕에 의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의식은 예술 현장에서 많이 드러난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노래와 무용을 만들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의식

고, 문학작품마저 순식간에 물건을 만들어내듯 똑딱 해지려는 인공지능의 능력 앞에서, 그저 놀라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과학문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헛된 망상일지 모르지만, 필자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문명 앞에서 오히려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루소의 명제가 공감되기도 한다. 아날로그적 삶의 방식이 그리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마치 사찰의 가장 먼 곳에 해우소를 두었던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는 아쉬움 같은 것이 아닐까.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처럼 안방 가까이 화장실을 두는 것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우소까지 걸어가며 사색할 수 있었던 그 거리의 의미를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곤란하다.

화가가 몇날 며칠 캔버스 앞에 서서 은뎀에 물감을 묻혀가며,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형상화해 낸 작품에는 인간의 삶이 배어있다. 그러므로 화가의 승결과 사유가 담긴 결과물 앞에서 우리는 때로 그 상상력에 놀라고, 깊은 사유 속에서 깨달음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그림에는 화가가 마주한 시간이 투사되어 있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한 정신성의 맥락이 엿보인다. 이렇듯 인류가 지금까지 이어 온 창작 방식은 인간의 맘이 묻어있어 감동에 젖게 한다.

이것은 화가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이 창작한 수많은 명곡에는 그의 고뇌가 깃들여 있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소설이나 시가 여전히 읽히는 것도 치열한 삶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의 경험을 예술로 형상화한 작품들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런데 인간의 승결과 투사된 손길을 외면한 채, 인공지능을 이용해 감쪽같이 상품을 찍어내듯 만든 작품 아닌 작품들이 창작물로 발표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가리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모전이나 신인상, 또는 문예지에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한 가짜 작품을 버젓이 응모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기어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글이 문예지 신인상이나 문학상에 당선되었다가 뒤늦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 들통나 당선이 취소되거나, 제명된 문인들이 생겨나는 불상사도 있었다.

필자가 펴내는 문예지의 신인상 문학평론 응모작 가운데에도, 사전에 적발되어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었다. 제외된 이 응모작은 응모자가 시놉시스를 작성한 뒤, 분석할 작품과 함께 인공지능에게 제시하여 글을 쓰도록 명령한 결과물에 응모자가 가발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작품을 보는 눈과 평론을 전개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글의 밀도는 낮고 논리는 바로 결론으로 도약하는 양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시기는 대로 일하는 인공지능과, 보는 눈 없이 그것을 첨삭한 응모자의 협업으로 작성된 글은 신인상에 응모하는 초보자의 글답지 않게 일정한 밀도를 유지하고, 문장 구조도 얼핏 완벽해 보이지만, 그 논리는 모순되거나 공허하여 결국 기괴한 글이 되고 말았다.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경험보다 요약 위주로 접근하여 보고서처럼 작성되어 인간적 직관과 감각이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글쓰기의 전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태를 보여준 신인상 응모자들의 윤리감각 앞에서 그저 통탄할 뿐이다. 마치 공장에서 공산품을 뽑아 내듯,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비윤리적인 태도로 문학을 대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앞에서 밝혔듯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공지능을 만든 본래의 의도는 훼손될 수 있다. 지금은 그 기술을 둘러싼 인간의 허영과 탐욕을 더욱 우려해야 할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문은 곧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모든 예술가는 되물어야 할 것이다.

기고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따스한 봄기운이 퍼지는 4월, 광주 장애인체육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시설 분야 전반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며 2026년의 활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먼저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지난 3월 13일 가맹단체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며 한 해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각 종목단체의 대회 참가 및 행정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8일에는 광주시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무등체육관을 대관해 30여명의 광주장애인탁구협회 선수 전용 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되며,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에 힘 썼다.

이외 4월에는 광주시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해 4월부터 5월까지 종목별 일정에 따라 파크골프, 론볼, 볼링, 탁구, 당구 등 5개 종목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는 단순대회를 넘어, 오는 9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선발전전을 겸하고 있어 그

멈추지 않는 도전, 광주 장애인체육의 봄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는 탁구, 육상, 수영 등 11개 종목에 76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확정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생 선수들의 값진 경험과 성장은 곧 광주 장애인체육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에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안정적인 한 자릿수 성적 유지를 목표로, 체계적인 지원과 훈련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생활체육 분야 역시 촘촘한 준비를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워진다.

연초 종목별 공모 선정과 3월 18일 '2026년 제1차 장애인생활체육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생활체육 교실과 동호인 클럽, 각종 대회 지원 규모를 확충하고, 4월부터 자치구 중심의 균형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빈틈없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제20회 광주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의 가장 큰 축제로서, 많은 장애인생활체육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진다. 장애인국

민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는 국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광주시 시각장애인축구장 개보수 공사를 추진한다.

노후된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하고 인조잔디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장애인체육 참여 기반을 더욱 넓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전문체육의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그리고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광주·전남 장애인체육 통합 시스템 구축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전남장애인체육회 양 기관의 역할을 결합하는 데 있어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이다.

2026년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7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흐름에 발맞춰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촘촘하게 장애인체육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육,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전은 계속된다. 광주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봄은 이제 막 시작됐다.

취재수첩

광주FC, 악전고투 끝 재도약 하길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프로축구 광주FC는 올 시즌에 앞서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이정호 전 감독이 수원삼성으로 떠나면서 이정규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이 감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시즌 동안 광주FC 수석코치를 역임, 광주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적임자였다. 하지만 1부 리그 감독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우리의 목소리도 높

았다.

특히 구단 사정 역시 좋지 않다.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고, 주축 선수 이탈까지 겹치는 악재를 맞았다. 징계가 풀리는 6월까지의 온전치 않은 전력으로 버텨야 한다. 개막 전 광주가 유력한 강등후보로 꼽힌 이유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

5경기를 치른 광주FC는 현재 1승 3무 1패 승점 6점으로 리그 6위(득실차 -4)에 위치해 있다. 개막전 무승부에 이어 4경기 동안 1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비록 최근 서울전에서는 0-5로 패배를 당하기도 했으나, 기대 이상의 성적이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먼저 공격력 개선이다. 광주는 5경기에서 4골을 기록, 이 부문 8위에 있을 정도로 골이 터지지 않았다. 리그 득점 최하위 제주SKFC(3득점)와도 단 1골 차다. 유효슈팅은 6위(17개)를 기록했으나 실제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었다. 골 결정력이 있는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게 문제다.

철저한 부상관리도 필요하다. 최근 광주는 베테랑 안영규, 주세종, 최경록, 민상기 등이 줄부상으로 이탈해 서울전에서 극명한 전력차를 경험했다.

선수 등록 금지가 불가한 상황에서 선수들의 부상은 팀에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악전고투’를 이어가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다행히 최근 주어진 2주간의 안팎의 A매치 휴식기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을 마쳤다. 주세종 등 일부 선수들은 4일 강원전 출전을 목표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열악한 시민구단의 한계를 딛고 새 역사를 작성했던 광주다. 올해 역시 구단에 불어온 위기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길 바란다.

사설

광주 특급호텔 절실...체류형관광 만들어야

지난해 광주를 찾은 방문객은 6501만명이다. 이는 전년보다 6.8% 증가한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 높은 증가율이다.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행사와 축제,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연중 이어지면서 방문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린 5월에는 방문객이 전년 대비 19% 늘었고 여름 휴가철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10월에는 충장축제와 각종 문화행사가 이어지며 방문객이 전년보다 29.8%나 증가했다. 또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홈구장을 찾는 스포츠 관광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공연·전시 콘텐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같은 국제 행사를 찾는 이도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를 숙박으로 이어갈 수 없게 하는 체류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있다.

광주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5성급 호텔(일명 특급호텔)이 없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2024년 기준 국내 5성급 호텔은 87개가 있는데 서울 33개, 제주 20개, 부산 10개, 인천 8개, 강원 6개, 경기 3개, 대구·경북 각 2개, 대전·울산·전남 각 1개 등이 있다. 특히 특급호텔이 단순 객실 등급이 아닌 도시의 체류 구조와 산업 기반을 반영하는 인프라라는 점에서 이의 부재는 증가하는 방문객을 숙박과 소비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광주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4성급 호텔 3곳이 광주에 있는 게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객실 수가 600실 규모로 한정돼 체류기간을 짧게 하고 관광소비를 제한하는 등 관광산업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어쩌다 광주에서 대규모 행사나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객실 확보가 어려워 숙박 수요가 인근 도시로 분산된 사례가 그동안 반복돼 왔다.

관광업계도 이러한 광주 관광 구조를 ‘단기 방문 중심 도시’로 보고 있다.

체류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관광객 증가는 파급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광주를 실제로 머무는 체류형 관광 구조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

저렴한 한끼 ‘거지밥’, 팍팍한 현실 반영

광주에 ‘거지밥’이 인기가. 최저 2000원~5·6000원대 한식·중식을 판매하는 저렴한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가 대학가와 오피스 상권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각 가게의 반찬 수와 메뉴 구성 등을 자발적으로 안내하고 방문 후기를 남겨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로, 가격 필터를 통해 1만원 이하 식당만 등록할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만 10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을 정도로 확산 추세다.

지난달 20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난 1일 현재 누적 방문량이 6만5000건을 기록했다. 첫날 1200건이었던 일일 방문객 수도 29일에는 7633건이나 되는 등 늘고 있다.

부가 서비스인 ‘거지방’에서는 이용자들이 알뜰하게 장 보는 방법이나 생활비 절감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 밥은 소비자는 저렴한 식당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점주들은 별도의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손님을 유치할 수 있어 모두에게 반응이 좋다. 또 당일 생산·판매되지 못한 빵·디저트·간편식 등을 정가 대비 약 50% 할인된 ‘럭키백’ 형태로 판매하는 지역 기반 라스트 마일 푸드 플랫폼인 ‘럭키밥’도 등장했다. 이는 소비자가 앱에서 예약·결제 후 매장 에 직접 방문해 픽업하는 방식인데, 가성비 구매와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지역 브런치 카페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유통기한 임박·재고 정리·B급·리퍼·반통 등 ‘이유가 있는’ 상품을 정가 대비 최대 90% 할인해 판매하는 온라인 소프몰인 ‘이유몰’도 주목 받고 있다.

여기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과 무관치 않다.

이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면서 각종 생활필수품 가격, 특히 식품 가격과 외식 물가가 덩달아 치솟은 것이다.

실제로 최근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2026년 2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동향’을 보면 광주의 생활물가지수는 121.02로 전년 동월 대비 1.4%, 전남은 121.90으로 1.8% 올랐는데 식품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소비 시장에 절약을 넘은 이러한 ‘생존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먹고 살기 ‘팍팍’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7090-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